

수행하고 기도하면 참지 못할 것도  
참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불교의 힘, 기도의 힘입니다.  
공부가 제대로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 단양 광덕사 회주 해인 스님

제838호 2011년 6월 1일 수요일 (음력 4월 30일 · 불기 2555년 · 주간)

## “인재불사 시급함 느껴 실천했다”

### 북한산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 10년 만에 청년회 재창립... 교불련도 청년불자 지원

1995년 174만여 명이었던 25~34세 불교청년인구는 2005년 144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2005년에는 15~24세 불교인구가 129만여 명에 불과해 2015년 인구조사에서는 100만 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년 불자층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지 제 828호, 3월 23일자 보도)

이런 가운데 10여년 전 청년회 활동을 중단했던 한 사찰에서 청년 인재불사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청년회를 재창립해 눈길을 끈다.

북한산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은 5월 22일 경내 대웅전에서 젊은 불자들에게 한국불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재불사를 중흥하기 위해 노적사 청년회 재창립법회 및 발대식을 봉행했다.

종후 스님은 행사 시작 전 인터뷰에서 “10여년 전 청년회인 정립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다 흐지부지 되면서 중단된 적이 있다. 이후 청년회를 일으키려고 생각했지만 요원했다”며 “현대불교신문의 ‘청년 인재불사’ 관련 기사를 보고 청년회를 일으키야겠다고 발심해 오늘 재창립법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웃종교의 청년양성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열정은 놀라울 정도다. 이에 비해 불교의 앞날을 가만히 바라보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찰도 이제는 포교활동에서 미래불교를 위한 청년불자 양성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창립된 노적사 청년회를 위해 대한불교청년회는 법회 운영노하우 전수와 회차마련에 대한 조언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노적사 이병권 포교국장은 “향

후 회원모집, 회장선출 등 청년회 활동을 위한 조직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적사 신도뿐 아니라 노적사를 방문해주는 청년불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불법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청년회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찰 주지 스님이나 지도법사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스님들이 신경 써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청년불자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신심 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교수불자연합회도 청년인재불사양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 지도교수들에게 소정의 지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불련은 첫 지원 대학으로 강원대를 선정하고, 6월 11일 동아리 사무실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거행한다.

최용춘 회장은 “불자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공무원불자연합회, 의사불자연합회 등의 회원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2000만 불자수라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청년불자에 주목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불교 문화재 정밀 출품합니다” 교향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토랑 추기경이 5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랑 추기경은 자승 스님과 환담 후 한국불교역사기념관을 방문해 불교 문화재를 관람하고 탁본 체험을 가졌다. 토랑 추기경은 “문화재의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느껴진다”며 문화재 보존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관련인터뷰=2면) 글=박기범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 “통일 한국 위한 불교 역할 중요”

###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한국불교종흥대토론회서 강조



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은 발제 내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일상화됐고, 정부의 모순된 대북인식이 통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념 대립을 협력적 경쟁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수한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종교고, 불교라고 생각한다. 남북화해의 가치 확산,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는데도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통일 시대를 대비한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동된 입장을 보였다.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장도 불교가 사회성을 넓히고 통일 한국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원장은 “원호의 화쟁사상처럼 다름을 인정하는 불교적 가치가 중요하다. 불교가 화쟁사상과 연가론의 현대적 해석과 확산에 노력해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환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로 민간의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불교계가 나서서 불교적 방식으로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담 스님도 남북의 보편적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불교를 매개로 남북 교류와 상호방문을 통해 남북 화해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자민당의 반대로 지연됐던 조선왕실의례 환수 참의원 비준이 가결됐다.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통과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표결 끝에 5월 27일 비준했다. 자민당은 본회의에서도 의결 반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 비준이 통과됨에 따라 31일로 예정된 내각 회의에서 비준안을 발표한다. 이로써 조선왕실의례 1205책은 일본 내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쳐 비준안에 따라 6개월 내 반환될 전망이다.

## 문화재 환수, “웃고, 울고...”

### 의궤환수 참의원 비준... 이천오총석탑은 파손

다.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참의원 비준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계 등 민간에서 환수를 위해 노력 중인 대표적 문화재 ‘이천오총석탑’이 3·11 일본 대지진 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은 조선왕실의례 환수를 위해 일본 방문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천오총석탑은 4층 옥개석과 일부분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미끄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범 기자

우리나라에 출판된 불교사전은 대역섯 종. 모두 크고 무거워 휴대할 수 없었다.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최근 <큰사이스판 불교사전>을 발간했다. 책에는 불교와 관련한 교리·사상·역사·인물·문화 등 불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1216쪽에 4950여 항목으로 담겨 있다.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에 불과한 것도 특징이다. 조동섭 기자

## 불교사전, 이젠 들고 다니세요

이탈산 스님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일상화됐고, 정부의 모순된 대북인식이 통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산 스님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일상화됐고, 정부의 모순된 대북인식이 통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838호 CONTENTS

현장속으로 5  
한·일 불교계  
대대진 합동 위령제



청춘콘서트 6~7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성년의 날 콘서트



봉은사 강주 초청법회 14  
해월 스님



## 조계종 환경위원회

### 고엽제 매립 비판

질곡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관련해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5월 26일 발표한 입장서에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고엽제 매립과 살포를 30여 년 이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자연환경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위는 입장서를 통해 △민관 공동 전수 조사 △고엽제 매립 및 살포에 관한 정보 공개 △직접 피해보상 △고엽제 무단 매립 관련 협약·규정의 개정 △독극성 제조제 사용 제한과 안전한 폐기 및 관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 “당신과 나누고 소통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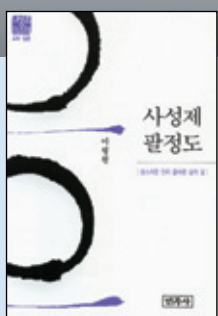


내 영혼은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작은 꽃을 피운다.

Q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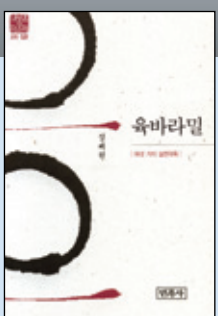
☐ 불교의 다양한 주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담아낸 실용적인 민족사 시리즈 책입니다.

» 교리·입문  
사성제·팔정도



이필원 - 값 6,500원  
성스러운 진리,  
올바른 삶의 길

» 교리·입문  
육바라밀



성재현 - 값 6,500원  
여섯 가지 실천 덕목

» 수행·명상  
생활명상



김남선 - 값 6,500원  
내 마음 알기,  
내 마음 치유하기

» 수행·명상  
위빠사나



정준영 - 값 6,500원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찾는다

» 신행·문화  
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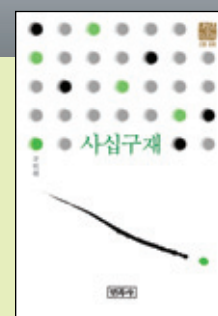
김호성 - 값 6,500원  
나무관세음보살,  
자비 실천의 모범

» 신행·문화  
아미타불



여여법사 - 값 6,500원  
나무아미타불,  
죽고 나서를 기약하지 마세요

» 신행·문화  
사심구제



구미래 - 값 6,500원  
고인을 떠나보내는  
49일간의 마음 준비